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가 적절하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가 논의를 해야 함.
- ④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문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 ⑤ 완성된 글이라고 볼 수 없음.

외래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개선과 예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202110791 강민경

서론

우리는 외래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인류세: 인간의 시대』의 2장인 <여섯번째 대멸종>을 읽던 중 앤 클라크 박사는 냉동방주 프로젝트의 시작이 플레시아 섬의 외래종 달팽이 유입으로 인한 토종 달팽이의 멸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¹⁾ 뉴스에 나와 외래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농민과 어민의 인터뷰와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배운 배스와 황소개구리 등의 외래종으로 인해 토종 생물이 사라져가고 있어 생태계 교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과연 현재의 국내에는 어떤 외래종이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보완방안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이 생겼다.

본론

1. 국내 외래종 유입

국내에 외래종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1800년대 선박과 항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민과 여행의 새로운 유형의 발달, 무역의 자유화. 이국적인 동식물에 대한 애완의욕 증가 등의 요인들이 생겨났다.²⁾

1.1 외래종에 의한 국내 생태계의 영향

이렇게 유입된 외래종은 국내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외래종으로 유명한 뉴트리아는 습지보호지역인 경상남도 창녕 우포늪에 자생하는 가시연꽃을 먹거나 토착 습지식물의 잎이나 뿌리 등을 갉아먹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켰다. 이뿐 아니라 애완과 관람용으로 들어와 야생으로 방생된 후 높은 번식력을 지니고 있으며 토착 생물과 환경에 질병을 전파시키는 미국 가재나 붉은귀거북, 식용과 어민 소득 증대 등의 자원 조성용으로 들여왔지만 강한 육식성을 지니고 있어 토종어류와 그 알, 치어 등을 잡아먹는 포식자로서 경쟁자가 없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큰입배스와 블루길어 있다.³⁾

1) 최평순, 다큐프라임<인류세> 제작팀,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2020, p.86~90

2)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3.Harmful Non-Indigenous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OTA-F-56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08

3)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2. 외래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

2.1 단어에 대한 개념

사람들은 외래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외래종이 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외래종은 침입 외래종으로 지역의 고유 생태계, 서식처, 생물다양성의 안전성과 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이다. 외래종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모든 생물을 말한다.

2.2 침입 외래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

침입 외래종인 배스와 블루길은 식용이 가능한 생선이지만 먹을 수 없는 생선이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잡아도 다시 야생으로 방생되었다. 또 한국 토착종인 청설모는 외래종이며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돌았다.⁴⁾

3. 침입 외래종에 대한 예산 문제

뉴트리아로 인해 생태계와 농작지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자 포획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었다. 이 포획사업으로 뉴트리아의 약 77%의 개체를 퇴치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꾸준한 사업추진은 되지 않았다.⁵⁾

4. 외래종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모든 외래종이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모든 외래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외래종이 아니라 침입 외래종이다.

결론

인류세가 된 지금 우리는 외래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개선과 예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4) EBS, 이것이 야생이다 2: 6부 청설모 2018년 1월 7일 방영 2021년 12월 10일 접속

5) 환경부,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2014년 8쪽

참고 문헌

<도서>

최평순, 다크프라임 <인류세> 제작팀,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2020

<논문>

환경부,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2014년 8쪽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3.Harmful Non-Indigenous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OTA-F-56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08

<사이트>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2021년 11월 20일 접속

<https://kias.nie.re.kr/home/main/main.do>

EBS, 이것이 야생이다 2: 6부 청설모 2018년 1월 7일 방영 2021년 12월 10일 접속

<https://www.ebs.co.kr/tv/show?prodId=127266&lectId=10811253>